조선대 이사회 초유의 공백사태 오나

9일 임기 만료 불구 새 이사회 구성 못해

8명의 현 이사들 대부분 연임 원해 난항

조선대학교가 이사회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조선대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9일로 끝나지만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현 이사(정원 9명, 현 이사 8명)들 대부분이 새로운 임기(3년)의 이사로 선임되기를 원하면서 이사진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이사진 구성시 3명의 이사를 개방이사(외부인사 선임)로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석인 이사 1명을 포함해 현재 8명의 이사 중 2명이 선임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 이사들 대부분이 연임을 원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긴급사무처리권 등을 발동해 행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내에서는 임시이사도 아닌 정이사 체제에서의 이사회 공백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조선대 이사회 등에 따르면 이사 9명 중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2명의 임기가 오는 9일 만료된다. 이 대학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명은 공석이며 6명은 지난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됐고, 나머지 2명만 임기가 남아있다. 나머지 2명의 잔여 임기도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새 이사진을 꾸리려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었지만 이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신임 이사를 1명도 선임하지 못했다.

강현욱 이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수개월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 9명 중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개방이사 3명의 선임 문제도 내부 이견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아직 추천조차 못하고 있다.

대학 일각에서는 신임 이사진을 꾸리지 못한 현 이사회의 권한을 정지해야 한다는 격앙된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자체만이 아닌 학내 자치기구간 이견으로 신임 이사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신임 이사진 선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農·석유화학 마이스터高 2곳 전남에 나란히 개교

전남에 친환경농업과 석유화학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나란히 개교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분야의 전남생명과학고와 석유화학 분야의 여수석유화학고가 지난 4일 개교와 함께 입학식을 가졌다.

전남생명과학고는 친환경농업경영과 2학급, 친환경축산경영과 1학급, 친환경자재과 2학급 등 5개 학급에 109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여수석유화학고는 공정운전과 3학급, 공정설비과 1학급, 공정계전과 1학급 등 5개 학급에 113명이 입학했다.

신입생 선발은 전국 단위로 실시됐으며 여수석유화학고가 4대 1, 전남생명과학고가 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학교는 특수목적고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전원 기숙사 생활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영마이스터로 육성된다.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해외 연수기회 등이 제공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자동화설비공고를 비롯해 한국항만물류고,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4곳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개교했다. 어업·수산물가공 분야의 완도수산고는 내년 3월 문을 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미나리 수확 나선 외국인 근로자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5일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용봉마을의 미나리꽝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돌미나리 수확작업에 한창이다. 간경화나 고혈압에 효과적이어서 각종 음식 등에 재료로 쓰이는 돌미나리는 4kg에 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일부 고교 '야자' 강제성 논란

시교육청 홈피 '불만 토로' 학부모들 민원 잇따라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야간자율학습 시행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고3 학부모들로 학교 측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A고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들에게 묻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실상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학교는 최근 3학년 학부모들이 학부모총회까지 열고 강제 야간자율학습 시행에 반대했다.

B고도 지난달 말 3학년에 진급하는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이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해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도 학부모 반대가 거세자 이번 주 안에 학부모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별도 학습이나 다른 것을 시키려 해도 아이들이 학교 방침을 어기고 야간자율학습에서 빠져나오길 꺼려한다"며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며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율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희망하는 고교생에게 학기 중 밤 10시 이전까지만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은 자율학습을 할 수 없고, 3학년은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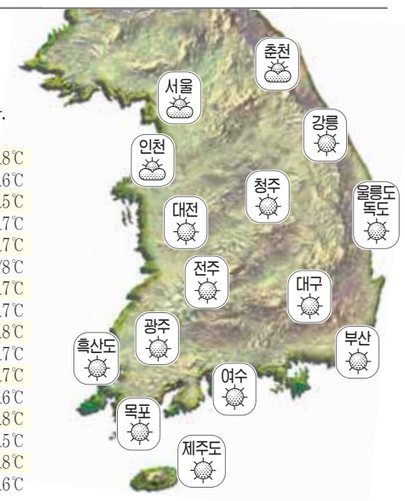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6분 해짐 18시 32분 | 달뜸 02시 22분 달짐 12시 45분

포근한 봄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18℃
목 포	맑음	1/16℃
여 수	맑음	5/15℃
나 주	맑음	-3/17℃
완 도	맑음	2/17℃
구 례	맑음	-4/8℃
강 진	맑음	-1/17℃
해 남	맑음	-1/17℃
장 흥	맑음	-1/18℃
순 천	맑음	-4/17℃
영 광	맑음	-2/17℃
진 도	맑음	0/16℃
전 주	맑음	0/18℃
군 산	맑음	-1/15℃
남 원	맑음	-4/18℃
흑산도	맑음	5/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5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8:48 20:57	01:02 14:18
여수	03:58 16:12	10:26 22: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 씨						
최저/최고	7/16	5/18	6/20	4/14	3/15	4/16

민형배 구청장 "광주지법 서부지원 추진 환영"

광산교육청 복원 촉구도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국회에서 대표발의 된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 추진을 환영하면서 광산교육청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 구청장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의 권익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들어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 추진을 환영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신설되면 포화상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기능이 분산돼 광주·전남 시도민이 지금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광주 동쪽 끝자락에 위차한 현재 광주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광주 다른 지역은 물론 나주시 등 6개 전남 시·군에 사는 180여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구청장은 광산교육청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민 구청장은 "광주 편입 이후 24년간 광산구는 인구 40만 시대를 맞았고, 초·중·고등학생이 6만7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며 "0~14세의 유소년 비율도 22%로 전국 으뜸인 광산구의 교육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교육서비스는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광산교육청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새학기 학원비 억제 통학차량 안전 지도

새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이 학원비 억제에 나선다. 통학차량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해빙기 교내 위험시설도 점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에서 김응권 제1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개학 이후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들이 학원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과다·고액 학원비를 받는 곳은 집중 단속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